

Gary Meadors 박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션 4a,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1 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 신학에 대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GM 4입니다. GM 4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어야 하며, 이 특정 강의에 대한 노트도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특정 상황에서 대문자를 쓰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라이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명확성을 위해 대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강조를 위해 대문자를 사용하니, 누군가 그것을 고려했을 경우를 대비해 옆에 언급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모델에 대한 개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신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 면에서 가장 재밌는 강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문제의 텍스트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 준비를 합시다. 좋아요, 우선 구약성경의 측면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가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구약의 패턴과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구약성경의 명명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언어적 구성의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번 일어난 학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초기 기독교 생활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도덕화하는 것으로 학대의 사례입니다.

그런 다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모두 모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구약의 패턴입니다.

분명히 직접적인 계시는 그 패턴의 주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보충 자료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모세 이전 시대로 알려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첫 페이지를 보면 모세 시대 이전에 계시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일들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모세는 성경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욥기는 다소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소통하셨을까요? 글썄요, 그는 동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나무이고,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처럼 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 성경 이야기에서 홍수에 대한 측면에서 상당히 방대해지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모든 것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온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유형 측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칼데아인의 우르, 아마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그 지역의 북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을 집어들거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직접 가야 했고,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간격을 두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룯이 있습니다. 룯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 참 하나님을 아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이용해 온갖 일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왕으로 등장했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등장했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릅니다. 발람도 일종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북쪽에서, 아브라함이 온 곳 근처에서 왔고, 꽤 많은 것을 아는 듯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 기록된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는 구전 전통과 일어난 모든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의 소통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계시의 시기였고, 신은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선택된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의 요구에 따른 말씀이 아니라, 그가 역사를 지휘하는 것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 노아의 정확한 시기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 즉 공통 시대 이전이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특히 모세 이전 시기에 받았지만,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체계화된 의미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모세는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나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성경, 특히 히브리어 성경, 율법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택된 개인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으로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택된 개인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좋습니다. 게다가 보조적 제품이 있습니다. 보조적이란 말하자면 그것이 곁에 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치의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좋은 나쁜든 서사적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앙 공동체는 교사들을 통해 그러한 것에 대해 배우고, 가치관이 발달하고, 세계관이 발달하는데, 물론 가치관은 이러한 것에서

나옵니다. 그 구전과 체계화된 직접 계시에서 우리는 가치의 예금을 얻습니다. 우리는 롯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혜 문학은 그러한 발전의 큰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약의 패턴은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보충 노트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 이전의 구전 구원 역사를 체계화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일부는 모세에게 직접 계시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십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때, 그리고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칠십인역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것이 두 번째 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받은 율법과 계시를 전파합니다. 그가 체계화한 원래 구절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반복하고 확장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얻는지에 대한 약간의 패턴을 제공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 과정의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자료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재입니다. 물론 멜기세덱과 발람,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의 전체 이야기는 모세가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주로 구전 전통에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구전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매우 안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말하고, 10명이나 15명과 함께 파티 라인 끝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얻는지 보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는 구전 기간 동안 전달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토라에 나오는 시나이산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기에 많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텍스트를 살펴볼 것이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성경 훈련이 될 것이므로 과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텍스트 중 일부는 신명기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모세가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전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성경만 인용할 때, 저는 여러분께 비디오를 멈추고, 그 텍스트들을 읽고, 그것들이 제가 말하는 요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읽어준다면, 성경 훈련이 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영원히 자료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탁해야 합니다. 나는 몇몇 주요 본문을 인용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샘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충 노트는 이것을 훨씬 더 구체화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 이후.

신은 다양한 대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 이후 시대에는 신의 정보 전달자가 된 사제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은 여러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기 외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그는 선택된 특정 개인들만 다루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열린 청중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쌓아 놓은 가치와 그들이 받은 계시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와 같은 글을 쓰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글을 쓰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선지자와 소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긴 책과 더 짧은 책을 의미합니다. 소선지자들은 12 소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핵심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의 성경적 서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대표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열린 청중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핵심 인물들이 구원받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패턴은 신자들의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량에 따른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지금 슬라이드의 맨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세요.

계시의 패턴은 신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신자들의 간청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 들어갈 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간청의 노선을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마도 패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좋아요, 계속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구약성경 패턴, 가치 보증금. 이게 여전히 통하는지 봅시다. 좋아요, 가치 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칼데아 해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롯은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롯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롯은 그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정보를 전했을 때, 롯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은 구두로 전달되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롯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롯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롯의 패턴 중 일부를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이 때때로 하는 것을 보고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특정 지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요. 롯, 그들이 나누었을 때 원했던 땅,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일화로 상당히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나는 남은 것을 가져갈게요. 이제, 그것은 부주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지점, 팔레스타인의 어떤 장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땅이라고 알고 있는 곳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근거에서 선택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던 곳 아래에 있었고, 심지어 역사상 그 당시에도 그들은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방탕한 도시, 죄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은 가축을 위한 풀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축을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읽을 때, 특히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롯이 몇 가지 나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문에 앉았습니다.

sit-in-the-gate는 그가 시의회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마치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의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세계관이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예를 얻고 싶다면 그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롯이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곳을 볼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계관과 충돌하는 한 세계관의 결과로 그의 삶에 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서 저는 이 본문을 잠깐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을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며,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때때로 신약성경 책이 얼마나 작은지 놀랍기도 합니다. 좋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로 만들고, 멸망으로 정죄하여 경건치 아니하게 사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주의하세요, 의로운 롯.
뭐라고요? 의로운 롯? 아브라함을 떠나 그 죄 많은 도시로 간 사람, 딸과
근친상간을 한 사람, 모압과 암몬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을 믿지 않아서 소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며, 그녀의 가치관에 따라 그 도시를 신의
심판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한
호기심의 정점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신과 함께 있는
대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강렬한 시선과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롯을 구출했는데, 악한 자들의 음탕한 생활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고, 그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보고 듣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추적하고 싶다면 괴로움이라는 단어와
괴로워한다는 단어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 예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나는 잠깐 후에 그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날마다.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습니까? 반복은 의미의
열쇠입니다. 이 텍스트가 없었다면 롯이 신자였다고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이는 대체로 그가 행동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나를 괴롭게
했고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피아의 통제 하에 있는 판사로서의
그를 예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를 말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 룯이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끔찍했고, 그 결과 그의 발전은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축적, 평등한 지식, 가치에서 우리는 모두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탄한 지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개발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도덕적 발전이 옵니다.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가? 위로.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하는가? 아래로. 하지만 그 모든 발전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내리는 선택을 다루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성경이 그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치가 침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야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게다가, 우리는 룯의 생명을 얻었고, 또한 가치 보증금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기 들어가서 이 텍스트 몇 개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그냥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무엇을 하도록 명하신 계명, 규례, 법도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볼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차지하러 건너가더라도 그 땅에서 그것을 행하라.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법규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절까지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고, 발견하지 말고, 발견하고, 발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내 말은, 이것에 대한 텍스트는 방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대표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라고 신뢰하신 정보를 알려주는 이 본문들을 해석함으로써 6~7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책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증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부름은 절대, 절대 없습니다. 왜 주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절대요. 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고 그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할 때 동사 do가 핵심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 문학은 매혹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전도서, 잠언, 그리고 많은 시편과 같은 특정 책에 나오는 지혜 문학은 지혜 문학입니다. 야고보서와 같이 신약에도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세계관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혜 문학은 사실상 토라를 인용하지 않지만, 토라의 메시지를 가져와 지금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장입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여기 앓기 전에 태그를 달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도 찾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구절들을 직접 보고 제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6절, 그들을 묶어라, 증거, 그들을 묶어라, 너는 묶어라, 실례합니다. 이것은 미국 표준판, 1901, 일종의 오래된 영어입니다. 증거를 묶어라, 내 제자들 사이에 율법을 봉인하라.

여기서 초점은 무엇인가? 초점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초점은 당신이 가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감추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19절: 내가 얼마나 멀리 가고 싶은지 보자. 사실, 16절, 내가 이미 읽었듯이.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감추시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찾을 것이다.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시온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증거에 근거한 것이다.

20절을 보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세요.

율법과 증거에 따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애통함이 없고, 그들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글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증거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규례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신 정보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약성경 패턴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모든 책을 읽을 때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치 예금 슬라이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그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롯처럼 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더 나은 모델입니다.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모델입니다.

왜? 결국 그들은 신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성경은 영웅들의 승리만큼이나 그들의 결점도 기록한다는 점에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 예치는 직접적이지 않고 암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관의 큰 부분이 됩니다. 롯이 가치와 신의 소통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인물들, 심지어 나중에 다윗까지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직 읽지 않은 여호수아 1장인데, 저는 이 장을 읽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6-8절까지, 그리고 24장은 하나님의 소통과 그 소통으로부터 가치가 발전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정말 이 본문들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에서 8까지, 모세의 가르침을 관찰하세요.

모세가 간 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모세가 가르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충실히 지켜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세요. 아니요, 모두 성경에 붙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저는 이것을 리허설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24장의 종결 지점입니다. 리허설 모티브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전달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가끔은 판단 연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돌아와서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얼마나 선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밝은 점들을 여러 번 봅니다.

여호수아 24:25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그것을 무엇의 책에 기록했는가? 신성한 지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발전시키는 세계관과 가치 복합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집중됩니다.

이걸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잘 못 다루거든요. 아마 PDF나 다른 걸 보고 계시는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핸드아웃이 있어요.

계시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집중됩니다. 오경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 시편, 선지서를 계속 읽으며 오경의 메아리를 보고 듣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신약은 구약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많이 반복합니다. 복음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초, 우리의 오경입니다. 사도행전은 확장과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신은 교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사도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행동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치 예금 개발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구약의 패턴입니다.

구약을 공부할 때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승인되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너무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AI 번역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느리고 더 표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NE 점술은.

ANE는 고대 근동 점술을 뜻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월트키의 책에서 그는 이것을 꽤 많이 밝혀냅니다.

그건 노트에 있는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이교도 세계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유대인 세계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교도 세계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계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세계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종종, 대부분의 경우, 주권적이고 따라서 공정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땅은 제비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호수아, 당신이 이 선택을 했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제비 뽑기의 일부예요. 그다음에 오르간 독해가 있고, 화살 던지기도 하고, 그걸 읽죠.

비슷합니다 . 인디언들은 종종 주술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흔했습니다.

그릇 속의 물을 읽는 것. 점성술. 영매와 영매술사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읽어볼 수 있지만, 레위기 1 사무엘에서 사울이 엔돌의 마녀에게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사울이 보응을 받은 것에 놀랐을 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로부터 수정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종류의 점술을 전적으로 정죄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교도의 점술 관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완전히 비난받았습니다. 게다가 구약 시대의 특별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점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에서 공인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잠금 구조라고 불리는 점술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심지어 신약에서도 사도인 마티아스와 함께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우림과 소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민족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주신 매우 짧은 기간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내보내시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라집니다.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저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우림과 소환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는 데 능숙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두 권의 책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제가 B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림과 소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 꿈은 컷다. 신약의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꿈을 꾼니다. 신은 꿈을 통해 저에게 소통합니다. 당신은 구원 역사의 발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꿈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주류에 더 가깝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꾼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꿈은 하루의 생각의 바쁜 일에서 나온다. 흥미로울 것이다.

프란츠 델리츠가 쓴 Biblical Psychology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노트에 그게 없거든요. 프란츠 델리츠, Biblical Psychology.

오래된 책이지만, 성경과 신자의 삶에서 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기적적인 표적.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들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전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사사들과 사무엘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초기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택함받은 개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속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개인을 통해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과 구약성경의 점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부 법률 조항은 통치하는 왕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함무라비와 다른 사람들은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구약성서와 매우 흡사하게 들리지만, 구약성서에서, 신의 법전은 그의 자기 공개였습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작품이지, 인간적 발전의 작품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에서는 점술과 마법이 주요했는데, 이는 코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체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통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가정하고, 그분은 그 소통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점술은 사소한 것이었는데, 삶, 율법, 증언을 인도할 적절한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들은 점쟁이들, 성경의 점쟁이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증거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항상 가르침의 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에서 주요 가르침의 순간으로 보지만, 그것은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주요 지도자들의 보조자들이 그런 것들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반복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점술은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점술은 주로 주요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 사건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패턴은 꽤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서 넘어가 봅시다. 슬라이드 번호 13으로 갑니다.

저는 그것을 호기심의 여담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몇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의 대표자로 사용하셨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선지자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원래의 수단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예언자 직분으로 옮겨갔고, 예언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신의 계시, 그의 신성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의 뜻을 조종했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문서나 구전으로 얻은 지식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선지자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설교하는 선지자들의 오랜 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썼지만, 글을 쓰는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림과 둠뎀의 사용은 제사장들의 것이었지만, 그것은 짧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로 전환했을 때, 그 분별의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짧은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사제와만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 노트의 섹션 B를 참조하세요. 좋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적인 절차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그것은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희소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기적적인 절차는 특별했습니다.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 계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범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가진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훨씬 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아는 사제나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상황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날 목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특별한 절차는 개인보다 국가적이었습니다.

구약의 관행이 반드시 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에는 예치금을 평가절하하는 특별 계시의 문제가 있고, 특정 구절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특정 구절에서 사물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설명적인지 명령적인지 물어봐야 할 때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명령이 일시적이고 설명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고 설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함께 멈췄지만, 구약 시대에는 규범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야 했지만, 그들은 멈췄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당신이 성경적 해석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이 설명하고, 무엇이 처방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처방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처방적이고, 안식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기간 내에 설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이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는 처방적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관행은 반드시 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제가 보기에 자물쇠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집사나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섯 명 있는데, 그중 두 명만 뽑을 거라면,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모자에 이름을 적어 놓고 누군가에게 뽑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성격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이 직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한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한 번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마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특정 사람들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를 사용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이든 서면이든 분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발전시키고 있던 세계관과 복잡한 가치관은 분별력의 열쇠였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개인주의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견고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실이었습니다. 케네디 시대는 매우 강하고 견고한 개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입니다. 교회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요약적인 관찰입니다. 이제 다음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명법입니다. 의지라는 용어의 사용과 하나님의 뜻의 범주입니다.

용어 will은 개요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연구는 영어 버전에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연속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관념적인 문구, 하나님의 뜻은 주로 신약성서의 문구입니다. 그 문구는 실제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의 욕망, 신의 목적, 등등. 그것들은 모두 신의 뜻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칠십인역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2:17과 18을 보세요.

저는 이것이 당신이 보는 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17과 18. 이것은 여기서 전면에 나와야 할 본문입니다.

로마서 2:17과 18. 바울은 이 초기 장들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17장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에 저항하거나 율법에 의지한다면, 다시 그 오래된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율법과 영광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알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승인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구절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사용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단일 구절이나 용어가 신학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음서에는 많은 텍스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과 성경의 서사적 부분에서 행동하고 사는 방법에 대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서사적 모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 본문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어나 한 구절을 취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의지라는 용어의 연속체입니다. 알겠어요? 그 단어는 욕망에서 목적까지 이어집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눈에 은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의 연속선의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신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것에서 신이 행할 것까지, 욕망에서 목적까지 이런 연속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신약에서도 사실일 거야.

목적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그리스어 구절. 흥미롭네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약성경처럼 하나님의 뜻의 패턴을 놓지 않는 칠십인역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목적하는 것의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언어학일 뿐입니다.

의미는 같지만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2성전 유대 문헌에서 그것은 말라기서부터 사해 두루마리까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 이전의 그 시기에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글이 많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이상하게도, 제2성전 문학에서 이 문구가 나옵니다: 신의 뜻. 이제, 그것은 언어적 진술을 구성하는 방식에 그리스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가요?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어나 구절이 신학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시락서, 토빗서, 마카비서 상권, 마카비서 하권에서 언급됩니다.

읽어야 할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역사이고 중요합니다. 신약 신자들은 이런 책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Ecclesiastes가 아니라 Ecclesiasticus, 즉 Ben Sirach의 지혜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Josephus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도덕적 의지는 에즈라, 마카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 대한 송가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2성전의 책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개인화된 개인적 의지에 대한 방해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2성전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전문 지식으로 가능한 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명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이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미 제 시간 동안 이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 수업은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멈추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해요.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요. OT1과 OT2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뜻 명칭. 하나님의 뜻의 범주.

하나님의 표준 번역본은 "나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목적도, 뜻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목적도 억제될 수 없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대한 온갖 종류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에서 왕국이 무너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매우 현존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는 성경을 지배합니다. 그가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구약성경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니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주권적 의지를 얻었고, 도덕적 의지를 얻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의 범주를 지배합니다. 저는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뜻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할까?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 교사가 되어야 할까? 목사가 되어야 할까? 사업가가 되어야 할까? 도량을 파야 할까?

이 모든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세상에서의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개별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에서 그것을 알아내고,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당신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범주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미리 알아내야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알아내야 한다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대한 신화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하나님ی 어떤 분이기를 바라는지에 부합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로 선택하신 방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델의 패턴. 다니엘은 우리가 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온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모델.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구절을 읽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읽어주고, 이 슬라이드를 따라 읽고, 20에서 23까지 읽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의 의존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 자신이 가진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직했고, 심지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구약성경에서 모범으로 제시한 좋은 신자의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매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수명은 그 기간 동안 바빌론의 여러 왕들의 수명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한 번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려왔고, 그런 다음 신은 그가 벽에 글을 쓸 때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본보기로 삼았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다니엘입니다.

살펴보죠. 학대 텍스트 샘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것을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전체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삭의 신부.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종을 불러서, 우리 민족의 신부인 이삭을 데려오라고 한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서는 유전적 계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민족에서 신부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인 을 보냈고 , 하인은 자신의 민족에서 신부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진술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있는 것입니다. 글썄요, 무엇이 방해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우물에 있었고, 적절한 가족과 소녀들이 와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의 기적으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양털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땅이 다 젖었을 때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젖게 하고 나머지 땅은 다 말렸습니다.

신은 기드온에게 꽤 인내심을 가졌지만, 기드온의 양털은 불신의 표시입니다. 적절하지 않았지만, 신은 기드온을 수용했고, 자신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가지 마세요. 구약성경의 안내 용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네 이해력이 다할 때까지 기대지 말고,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나는 그 구절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천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신뢰하지 말고, 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력까지 기대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야? 가치 보증금, 율법, 선지자들을 따르는 거야.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 뭔가 계시를 줘야 해. 그러면 옳을 거야.

그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그가 어떻게 네 길을 인도하겠는가? 시편과는 다릅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의 손에 손을 놓으라.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경전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전에서 나오는 가치의 예금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부름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텍스트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 텍스트 남용은 종종 내가 도덕적, 영성적, 또는 우화적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관점에 두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고, 196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대부분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보고, 보고, 또 봤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텍스트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책에 흥미로운 삽화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정형외과, 실례합니다, 안과 수술 센터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지만, 그녀는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IBM과 휴렛팩커드에 있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Mr. Clean이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이 칭찬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조사하면서, 그녀는

안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인터뷰에 불렀다. 그가 온다. 그는 방금 가방에서 기어나온 것 같다.

그의 정장은 모두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괴짜였습니다. NERD, 괴짜. 미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는 가방에서 방금 기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가 제공한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가서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열었고, 그녀의 눈에 띄는 구절은 레바논으로 내려가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방금 나온 남자가 인디애나주 레바논 출신이었어요. 어머니, 그녀가 흥분했나요?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신학교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녀가 전화해서, "좋아, 똑똑한 사람아, 이거 어때?"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으러 레바논으로 가는 자는 불행하다, 도움을 받으러 레바논으로 가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맥락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한 것도 많았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특히 아내일 때, 그냥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훌륭하게 되었고, 아마도 신은 유머 감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정의합니다.

아시죠, 죄송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시간 제한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성경에서 지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구약성경 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시면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 특정 섹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